I)형이상학을 한 번 읽은 후에.....

델타 이후부터[1] 뮈까지 번역을 거의[2]끝냈다.

///느리 나루터에 들어오면서 이전의 작업을 계속 이어 나갔다. 람다 편 3 장부터 뉘 편 6 장까지 모두 3권 22 장 번역을 한 셈이다. 들어오기 전에 델타 편부터 람다 2 장까지 모두 7 권 80 장을 해 놓았으니 도합 9 권 103 장을 번역 했고나! 그렇다고 모두 번역한 것은 아니다. 알파[3]부터 감마까지 4권 27장은 그리 중요할 것 같지 않아 번역을 미루어 놓았으며, 갚파 12 장은 이전의 내용과 물리학의 일부를 요약 해 놓은 것으로서 뺐다. 따라서 5권 39 장이 아직 번역 안 된 셈이다. 시간의 여유가 생기는 데로 번역 할 것이다. 비록 완성된 번역은 아니더래도 중요한 부분과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번역됐으므로, 이제 그간의 생각을 요약해 보기로 하자.

형이상학(타 메타 타 퓌지카) 이라는 제목으로 묶여진 아리스토텔레스의 강의록은 그 내용으로 볼 때 크게 4 부분으로 나뉜다. 1)서론 부분: **알파**(1권 2권), **베타**(3권), **감마**(4권)과 그리고 2)형이상학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 하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먼저 알아 두어야 할 '자연에 관한 강의'의 핵식점 개념들을 요약한 그리고 이전 권들의 여러 내용들을 요약한 부분인 **갚파**(11권)등으로 번역 안 된 부분으로 나뉘며, 번역된 부분은 3)있는 것을 말하는 부분과 4)있는 것을 말하기 위해 쓰여진 32 가지 용어들을 간략히 설명하는 부분 **델타**(5권) 등 크게 보아 둘로 나뉜다. 나아가서, 이 두 부분 가운데, 3)있는 것을 말하는 부분은 3-1)가장 먼저 있는 것으로서의 실체를 다루는 부분과 3-2)잠재성과 활동성과 현실성이라고 말해지고 있는 것 그리고 진실이라고 말해지고 있는 것을 다루는 부분 **테애타**(9권)과 3-3)있는 것의 구분에 따라 분류되는 앎을 다루는 부분 **엡실론**(6권) 등 세 가지로 나뉜다. 다시, 3-1)실체를 다루는 부분은 3-1-1)'실체는 결국 종(種)이다'고 결론 내리는 **제타**(7권)와 3-1-2)감각실체 또는 질료 그리고 질료를 지니

---

1) 시간상 델타 이전을 번역하지 못 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으나, 실은 시간이 없어서였다. 여유가 생기면 처음부터 다시 번역하리라[998년 봄에 쓰여진 이글을 2003년에 다시 적는다]

2) 급하게 아버님의 전화를 받고 집에 가느라, 하루 정도 분량의 희랍원문을 번역 못했다. 뉘 편 5-6장을 미쳐 마치지 못했다. 약 15이면 되는데...

3) 알파는 1권과 2권으로 나뉜다.

지 않는 것을 기술하는 **에애타**(8권)와 3-1-3)'하나도 실체인가'라는 물음으로부터 출발해서 있는 것과 있음 그리고 하나 여럿 많음 등을 설명하는 **이오타**(10권)와 3-1-4)감각적인 실체 그리고 움직이지 않는 실체 그리고 영원한 실체를 기술하는 **람다**(12권)과 3-1-5)수학적인 것과 이데아 등, '감각적이지 않는 것도 실체인가' 라는 물음을 다루는 **뮈**(13권)과 **뉘**(14권) 등 다섯 부분으로 나뉜다. 이런 여러 부분들을 다시 아래 목록으로 묶어 보자.

1)서론부분: 알파(1-2권)[4], 베타(3권), 감마(4권)

2)내용요약: 갚파(12권)

4)32가지 용어설명: 델타(5권)

3)있는 것에 대해 말하는 부분:

3-1)가장 먼저 있는 것으로서의 실체:

3-1-1)종(에이도스)로서의 실체: 제타(7권)

3-1-2)감각실체 또는 질료 그리고 질료를 지니지 않고 있는 것: 에애타(8권)

3-1-3)하나와 여럿 그리고 실체와 있음: 이오타(10권)

3-1-4)구분되는 실체들(감각적인 실체와 움직이지 않는 영원한 실체): 람다(12권)

3-1-5)수학적인 것과 이데아도 실체인가: 뮈(13권)와 뉘(14권)

아리스토텔레스(기원 전 384/3 - 322/1)가 죽은 뒤, 로도스 출신의 안드로니쿠스에 의해 기원 전 60-50년 경에 출간 된 총 14 권 142 장 메타퓌지카는 '있는 것 그 자체(토 온 헤애 온, 1033a21)을 관조(테오레인)하는 앎은 어떠한 것이며, 있는 것은 무엇(τί, 987a20, 1041b9, 1092a20, 1093a13)'에 대해 말한다. 그에 따르면 가장 먼저 있는 것 그것이 실체이며, 실체는 바로 종(에이도스, 1041b9, 種)이다. 이 실체를 에워 쌓고 그의 강의가 움직여 가면서, 신(테오스, 神), 있는 것, 하나(헨), 모나드, 수, 움직임 등이 근원적으로 말해진다. 그러는 가운데 이것들에

4) 알파는 큰 알파(A)와 작은 알파(A ΕΛΑΤΤΟΝ)로 나뉘어져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예를들어 로스(W.D.Ross)) 알파를 두 권으로 쳐, 총 14 권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알파와 작은 알파를 두 권으로 친다면, 타 메타 타 퓌지카(TA META TA ΦΥΣΙΚΑ)는 총 13 권이 될 것이다. 일단 나는 14 권이라 말한다.

관한 이전 의견(독사)들이 역사적으로 때론 비 역사적으로 펼쳐지며 개정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주로 논증하는 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다. 다시 말해서, 있는 것에 관해 말하고 있는 그는 자신 이전까지 의견들의 요점을 하나 씩 먼저 적은 뒤, 문제의 그 의견들이 어떤 점에서 불합리(아토폰)한지 꼬집어 그 이유(로고스)와 원인(아이티아)을 나열하면서, 맨 나중에 자신의 견해를 너무나 간략히 내 세우는 식으로 주로 자신의 논지(論旨)를 펴나가나, 무조건 이전의 견해들을 배타적으로 포기하지는 않는다. 그 견해들의 불합리한 점을 배재하면서 올바른(ὀρθως, 128a1)점은 받아 들이는[5] 가운데 자신의 결론을 조심스레 내 놓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그는 '.....이라고 말해진다(.....레게타이...)'는 표현을 자주 쓴다. 아마 그 당시에 사람들의 입에서 실체는 '있어오고 있는 그 무엇(토 티 에앤 에이나이, τὸ τί ἦν εἶναι, 본질, 본질(本質))이며, 보편자(토 카톨루, τὸ καθόλου, 보편자, 普遍者)이며, 류(게노스, γένος, 類)이며, 기체(토 휘포케이메논, τὸ υὑποκείμενον, 基體)이다'고 자주 말해졌던 모양이다(1028b33-36). 이 넷 중에서 그는 있어 오고 있는 그 무엇, 곧 종(토 에이도스, τὸ εἶδος, 種)을 실체로 집어든다. 그러나 나머지 셋이 완전히 포기된 것은 아니다. 어떻게 보면 이 셋도 실체에 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1038b19-22).

**II)형이상학을 모두 옮기고 나서.**

기나긴 길을 걸어 왔다. 헬라어에 익숙하다면, 좀 더 쉽고 확실한 뱃 길따라 왔을텐데, 힘겨웠다. 언제 우리 말로 철학 할 수 있는 내가 될 것인가. 그 순간이 열리면 이 민족 언어가 분열 안 돼 나라 힘이 하나 되는 신명나는 우리 세상 내일이 올 것이다. 언어가 중요하다. 철학 또는 학문에서는 특히 그러하다. 언어를 통해서 우러 나오는 사물(프라그마 πρᾶγμα, 1006b22)을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조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사람 또는 나라를 조절하는 것이 아니다. 프라그마를 통해서 나 너 우리 마을 사회 나라 사람 세계 자연 우주 다시 말해 이 모든 것 또

5) 이러한 방식은 헤애겔이 이전의 철학을 변증적으로 자신 안에 가두는 방식과 같다. 헤애겔의 변증법을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대로 쓰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전의 견해를 두루 자기 체계 내에서 포섭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버릴 것은 버린다는 점에서 그렇다.

는 있는 것과 있음이 조절된다. 너와 나를 조절하려면 먼저 너와 나를 이루는 프라그마를 올바로 인식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식은 무엇을 통해 이루어질까. 그게 바로 말이다. 말을 이루는 것은 이름(오노마 ὀνομα, 1006b11)이며, 이름이 가리키는 것은 프라그마이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도 말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어찌보면 그의 형이상학은 '말해진다'(레게타이 1028a10)로 시작하여 '말해진다'로 끝난다. 범주들과 형이상학은 이 레게타이 투성이다. 말해지는 것들을 잘 나누어서 그 쓰임새를 분별하다 보니, 잘게 나누어진 말 곧 이름이 하나같이 가리키는 것이 우시아(실체)임이 드러나자, 이 우시아를 에워쌓고 자신의 디아노이아(생각)을 굴러가게 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알파에서부터 뉘까지 모두 실체에 대해 말한다.

누구든 무엇인가를 보려한다. 이리 기웃 저리 기웃 훔쳐보면서 궁금하지 않아도 알려하는 게 사람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앎은 구분된다. 실천적인 앎이 있는가 하면, 생산적인 앎도 있으며, 이론적인 앎도 있다(1025b25-26, 1064a10 이하). 이러한 앎들 중에 가장 뛰어난 앎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그러한 앎이 지혜(소피아)라 말해진다. 지혜는 있는 것들 중에서도 가장 먼저 있는 것으로서의 우시아와 관련한다. 가장 먼저 있는 것이니, 나중에 생성되는 것들의 원인임은 두말 할 나위도 없으리라. 그런데 있는 모든 것들의 맨 처음 원인이기도 한 이 우시아도 두 가지로 구분된다. 흔히 이것(토데 티)라고 말해지는 것이 첫 번째 우시아고, 이 것에 속하는 그리고 이 것이 무엇임을 알려는 그러한 것(토이온 데)으로서의 두 번째 우시아 곧 에이도스(種 1042b8)이다. '어떤 것-예를들어 사람인 것-에 있어 오고 있는 그 무엇'(토 티 에앤 에이나이 1041a28)이다. 사람을 보기로 들어 보자면, 종은 사람이고, 사람을 통해서 사람인 것(티노스 안드로오푸, 범주들1a22)이 알려진다. 다시 말해, 이 것이 사람으로 알려진다. 따라서 앎이 정의들로 이루어진다면 정의(호리스모스)되는 것은 사람**인 것** 또는 **어떤** 사람 또는 **이** 사람이 아니라, 사람[6]일 것이다.

'우시아(먼저 있는 것)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말하면서 그는 먼저 있는 것이라고 말해지거나 먼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언 듯 들 수도 있는 것들, 예를들어 이데아 수(數) 몸 보편자 등을

6)사람의 로고스는 여러 가지인데, 그 중의 하나가 '두 발 생물'(1006b3-4, 1037b12)이다. 이러한 로고스가 정의라고 말해진다고 볼 수 있으리라.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정의란 우시아의 로고스(1037b25-26)이기 때문이다.

언급하면서 이것들에 관해 자세히 논의한다. 그러나 이것들이 우시아는 아니다 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이것들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힌다. 따라서 그에 따르면 이데아는 실체(우시아) 곧 먼저 있는 것이 아니다.

끈질기게 플라톤을 위시한 이데아 론 자들을 자신의 강의 처음부터 끝까지 공격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급기야 이데아 론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까지 한다. 이데아는 본디 수일 수도 없고 또 프라그마와 떨어져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이 말하는 이데아는 불 가능하다는 것이다. 치밀하게 의도적으로 반박하는 그를 보고 있으면 이데아 론을 끝장내기 위해서 강의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이다. 어쨋거나,

이렇듯 실체를 에워쌓고 이어지는 말들은 이제 신(테오스 1072b25_에 닥아선다. 신도 실체 중의 하나에 속하기 때문이다. 실체는 크게 보아 감각실체와 움직이지않는 실체 등 두 가지로 나뉜다. 다시, 감각실체는 사라지는 실체와 사라지지않는 영원한 실체 등 둘로 나뉘지만 말이다. 바로 이 움직이지 않는 실체가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서는 신(神)과 동일하다. 따라서 먼저 있는 것에 대한 그의 강의는 신에 대해 말하는데로까지 나아간다. 궁극적으로 지혜란 신에 관한 앎(1029a19)이며, '있는[ 것 (으로서의)] 있는 것'(토 온 에애 온 1003a21)인 신에 관한 앎이 모든 앎들 중에서 최상의 앎(1029a20)이기 때문이다.

이상은 13 권[7]으로 이루어진 형이상학을 뭉뚱그려 이야기 해 보았으나, 실은 이 권들 모두가 매끄럽게 그 내용에 있어 이어진다고 만은 볼 수 없다. 물론 그가 죽은지 380 여 년 흘러 후학이 그의 강의들을 모아 책으로 묶었으니 그럴 수 밖에 없으리라. 그렇다고 전혀 다른 내용들은 더구나 아니다. 다소 밀접하게 연관되는 주제들이 서로 연 이어져 펼쳐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지혜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 물음이 간직하는 어려움들은 어떠한 것들인가 가 분석되면서 지혜를 찾아 갔던 선행자들의 의견이 요약 비판된다. 이 부분에 알파 베타 감마 엡실론 편 전부와 갚파 앞 부분이 속한다. 다음으로, 있는 것을 말하기 위해 주로 거론 된 용어들이 설명

7) 큰 알파와 작은 알파를 낱 권으로 파악한 것이 아니라, 베커 판에 따라 한 권으로 간주하면, 형이상학 전체는 14권이 아니라 13 권이 된다.

된다. 이 부부은 델타 편이다. 그 다음으로, 실체들이 집중적으로 설명된다. 이 부분에는 제타 에애타 이오타 람다 뮈 뉘 등이 속한다. 그 사이에 잠재성과 활동성과 현실태와 진실이라고 말해지고 있는 것이 설명된다. 이 부분에는 테애타 편이 속한다. 그리고 나서 움직임이 분석된다. 이 분에는 갚파 편 뒷 부분이 속한다. 이처럼 형이상학 총 13 권은 다섯 부분으로 그 내용 상 나뉘어질 수 있으리라. 다시 각 편들을 아래처럼 요약 해 보자.

지혜란 무엇이며, 지혜를 찾아 갔던 선행자들의 의견들이 요약 비판되는 큰 알파와 그리고 철학은 '진실에 관한 앎이다'고 말하는 작은 알파로 **알파**는 이루어지며,

우리들이 찾는 앎이 지니는 어려움들 14 가지가 열거 분석되면서 **베타**에서는 그 문제점들이 선명해지고,

**감마**에서는 있는 것으로서의 있는 것을 다르는 앎(철학)에 연관되는 것은 실체라고 말해지면서 앎의 아르케가 논증된다.

**델타**에서는 있는 것을 말하기 위해 쓰여진 여러 용어들이 설명된다. 아르케애, 원인, 요소, 자연, 필연적으로, 하나, 있는 것, 우시아, 동일, 차이, 같음, 대립, 먼저와 나중, 뒤나뮈스(잠새성), 량, 질, 관계, 목적, 한계, ~에 따라, 배열, 관습, 속성, 결여, 갖다, 안에 있다, 부분과 전체와 모든, 잘린, 류, 거짓, 우연 등이 사전 식으로 간략하게 분석된다.

**엡실론**에서는 앎이 분류되고,

**제타**에서는 가장 먼저 있는 것으로서의 실체가 말해지며,

**에애타**에서는 감각실체 또는 질료와 그리고 질료를 지니지 않는 것이 말해진다.

있는 것은 잠재태와 활동태와 현실태라고도 말해지며, 진실이라고도 말해진다는 것이 **테애타**에서는 말해지며,

하나도 실체일까 라는 물음을 제기하면서 열어지는 **이오타**에서는 있는 것과 있음, 하나와 여럿과 많음에 관해 말해지고,

**앎**에 관한 어려움들과 항상 진실인 것이 말해지는 갚파에서는 더불어 움직임도 설명된다.

**람다**에서는 (소멸하는 실체와 영원한 실체들인) 감각실체와 움직이지 않는 실체가 말해지며,

**뮈**와 **뉘**에서는 산술적인 것과 기하학적인 것 등 수학적인 것과 이데아도 실체일까 라는 물음이 조사된다.